

국제 경기장 37개·훈련장 31개… 신축·개보수 공사 ‘착착’

1년 반 남은 광주U대회

준비 어떻게 돼 가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성공개최를 준비하는 광주시와 광주U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발걸음도 부쩍 빨라지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카잔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기’를 인수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조직 및 운영 시스템을 실전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각종 경기시설과 선수 속박시설 조성, 자원봉사자 양성 등 대회 기반구축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제 대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 속박·부대시설 준비 = 선수와 일원 등 고 있다. 대회 성공개최와 흑자대회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복안이다.

조직위는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 37개와 훈련장 31개 등 총 68개 경기시설을 지난 12월 말 최종 확정했다. 광주에는 경기장 17개와 훈련장 19개, 전남에는 경기장 20개와 훈련장 2개씩이 마련된다. 애초에는 76개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대폭 축소됐다. 메인 경기장으로 쓰일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은 오는 2015년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4, 5월에 각각 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공정률은 13%와 16%를 기록하고 있다. 증축해 사용하는 국제테尼斯장도 지난 해 11월 착공,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개보수 대상 시설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FISU와 협의의 과정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2015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각 종목별 경기장은 FISU 규정과 국제경기연맹(FSI)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며, 2015년 3월까지 국제 공인 및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 속박·부대시설 준비 = 선수와 일원 등

메인 경기장 수영장·다목적 체육관 내년 3월 준공

1만4000여명 사용 선수촌에 병원·식당 등 들어서

조직위는 이를 위해 지난 2013 카잔U대회 결과와 올해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및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 개최결과를 검토, 분야별 현장 운영계획과 운영요원 행동매뉴얼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FISU와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의 주축도 지난 12월 트렌티노 동계U대회 폐막과 함께 광주로 옮겨지면서 광주U대회에 대한 관심과 설립도 고조되고 있다. 전세계 60개국에서 220여 명이 참가하는 FISU 포럼이 오는 3월 17일부터 22일 까지 6일간 광주에서 열리게 되며 집행위원회와 감독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이 마련하는 각종 회의도 연이어 개최된다.

▲ 경기·훈련장 조성=조직위는 신설 경기장 최소화, 그리고 개보수 경기시설 축소를 통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

170여 개국에서 온 선수단 1만4000여 명이 사용하게 될 선수촌은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심 내 세계축구사업으로 추진된 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2015년 3월까지 3726세대 규모로 건립돼 U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으로 활용된다. 7000여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선수촌은 거주와 공동, 국제, 운영, 미디어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일촌 및 퇴촌센터, 식당, 병원, 종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조직위는 올 초 FISU 등과 선수촌 속수 및 부대시설 미감공사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 설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수촌은 2014 일 동안 24시간 운영되며, 한꺼번에 3500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이 운영되는 만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7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김운석 광주시장이 지난 2013년 7월 러시아 카잔 경기장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넘겨받아 훈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될 예정이다.

▲ 수송대책=대회 참가자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규모 차량 주차시설인 모터풀 6개소를 지정해놓고 있다. 차량 운영 노선과 관련, 전 남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32개 노선을 포함해 모두 275개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파악된 상태다. 조직위는 교통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동으로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협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 마케팅 및 홍보대책=조직위는 지난 3년 동안 FISU와 2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104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글로벌을

포함한 모든 마케팅 권리를 조직위로 이관받아 대회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도 거뒀다. 조직위는 지난해 1월 IT부문과 통신부문 후원사인 SK C&C, SK텔레콤과 후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종합마케팅 대행사인 주이노션과 마케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전자, 은행, 보험 등 각 분야의 후원기업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통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개·폐회식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U대회 경기장 위치도



대학생 2만여명 수영·축구 등 21종목 기량 겨루

광주 U대회는?

유니버시아드는 전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으로 올림픽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하계대회와 동계대회로 구분되며 FISU 회원국인 164개 국가의 만 17~28세 사이의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참가한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전남지역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기계체조와 농

구, 디아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파,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 등 21개 정식종목에서 2만여 명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골프와 배드민턴, 사력을,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 등 7개 종목도 선택종목으로 참여한다.

광주U대회는 ‘Light Up Tomorrow-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 삼아 ▲친환경(Ecovisiad) ▲평화·인권(Peaceversiad) ▲문화(Cultureversiad) ▲IT(ITversiad) 대회를 지향하게 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운석 광주U대회 사무총장 인터뷰

“비용 절감, 꼭 흑자대회 치를 것”

“앞으로 남은 18개월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실전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4일 2015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운석 사무총장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대회가 눈 앞으로 다가온데다, 대회 운영시스템 정비와 1000억 원대의 자체 운영비 마련, 프레(Pre) 대회 준비, 자원봉사자 교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광주U대회를 흑자대회로 개최한다’는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

게 준비해갈 생각인가.



프레대회 개최 시스템 점검

FISU와 협상 시설비 낮춰

확보했다. 애초엔 대회 개최비용으로 8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비용이 절감된다면 흑자대회는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 대회 운영 위원은 얼마나 확보됐나.

▲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과 같은 하드웨어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현재처럼 진행만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남은 기간 간동안 대회를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2014년부터 직원 400명 규모로 확대된 조직위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기요원 훈련 및 자원봉사자 양성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국내 21개 종목의 각종 대회를 광주에 공모 등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 이번 대회가 흑자로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 충분히 흑자대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광주U대회의 목표는 ‘저비용 고수익’이다. 광주 시민에게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의 경우 지난 3년간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와 끈질긴 협상을 통해 애초 정부 승인액보다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액 광주가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국내·외 마케팅 권한 등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참여도 대회 성공개최의 중요한 요소다.

▲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중요한 때다. 광주 시민께서 빚을 한푼도 남기지 않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조직위 전 직원의 각오다.